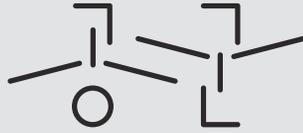


공군 창설 7인의 주역

대한민국 공군 창설 7인의 주역. 왼쪽부터 최용덕, 김정렬, 장덕창, 이영무, 박법집, 이근석, 김영환 장군.



05	화풍지설	당신은 등자가 있습니까?
06	달라진 월간「공군」	공군 70주년, 월간『공군』의 새로운 이야기
08	기획특집①	공군의 어제 : 『코메트』와 『오래된 미래』
12	기획특집②	공군의 오늘 : SAP 2023
16	르포르타주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
22	조인, 조인!	본질의 발견을 추구하는 기획자, 최장순 대표
26	그날, 우리 하늘	식민지 하늘의 첫 비행
28	공군의 철학과 사상	공군의 항공사상
32	지금 이 순간!	12월의 참모총장동정 & 공군 소식
<hr/>		
36	담벼락	별
38	책 읽는 공군	『백의 그림자』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hr/>		
40	지피지ծ 공군인물	서국일 장군을 아십니까?
44	공군인의 마음 건강	마음의 보약 : 긍정심리
46	우주의 이해	하늘로! 우주로! 우주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48	생활 타이포그래피	글자 다루기
50	첫 독자의 편집후기	2019 '황금 돼지꿈' 꿀 준비되셨나요? 『트렌드 코리아 2019』
52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클라우제비츠, “군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전문가다.”
54	Hollywood English	언브로큰
56	트렌드가 보인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그리고 쿤에 대한 진실들
58	생각하는 그림	불편해도 괜찮아
60	기준의 기준	사라진 컬러링을 찾아서



표 지(앞)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그 래 픽 상병 서희강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1월 1일(통권 제487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소령 조요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중위 이준건
디자인 · 인쇄 국군인쇄창(F18120495)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등자(鎧子)가 있습니까?

등자(鎧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자는 말안장 아래 붙어있는 발받침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안장의 발받침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말을 길들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기원전 45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자가 처음 사용된 것은 무려 4000년 이 지난 기원전(BC) 4세기경이고 기병 전투에 등장한 것은 기원후(AD) 3세기 전후로 보입니다. 그것도 고구려 등 동북아 지역에서나 그 시기이지 유럽은 7세기쯤 되어서야 등자가 사용되었다고 하는군요.

등자의 역할은 말에 올라탈 때 이를 밟고 올라가는 편리성과 함께 움직이는 말 위에서 승마자의 두 다리를 고정시켜 이동 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등자가 고안되기 전에는 말에 올라탈 때도 뛰어(점프) 올라가야 했고 달릴 때에도 말에 탄 사람의 두 다리 힘으로만 중심을 잡고 몸을 고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 외에는 기마병의 역할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돌격해 들어가면서 적을 공격할 때 전해지는 반동으로 말에서 떨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병들은 적을 상대로 찌르는 동시에 창을 놓는 방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자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전투의 중심 역할이 보병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자가 보급되면서 기병들은 말 위에서 칼과 창을 마음껏 휘둘러 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달리는 말 위에서 말고삐를 놓고 전후좌우로 활을 쏘며 전투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말안장에 앉아 발을 등자에 고정한 기병은 매우 쉽게 보병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등자를 처음 고안해 낸 사람들은 우리민족의 선조격인 북방유목민족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

중에도 기마 수렵도가 그려진 고분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만주 통거우에 소재한 무용총 수렵도가 유명하지요. 등자에 군세계 발을 딛고 오른쪽 뒷 방향으로 몸을 돌려 사슴을 향해 활을 쏘는 벽화의 그림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역동적인 기상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광대한 영토를 개척하고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발이 고정되지 않고 헛돌게 될 때 느끼는 피로감과 불안정성을 없애준 등자의 발명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기사(騎士)들이 중심이 된 중세시대 봉건사회의 출현이나 하루에 200km씩 이동하며 동유럽까지 진출한 몽골제국의 역사는 등자라는 작은 발명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등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꼭 말을 타고 달릴 때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시간(時間)이라는 이름의 말 등에 올라타 적병(敵兵)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고 격파해 가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고독한 기마병의 길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달리는 길에 등자 없이 올라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약간의 외압에도 허망하게 낙마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등자는 보급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자의 소유여부는 결코 계급이나 나이 순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등자와 같은 ‘삶의 철학’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2019년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타났군요. 말고삐를 내려치기 전에 내 등자가 어디 있는지 꼭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해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주

공군 70주년, 월간『공군』의 새로운 이야기

2019년은 공군 창군 70주년입니다! 짹짹! 경사스런 해를 맞이하여 월간『공군』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말씀해주신 내용도 열심히 듣고,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의도 챙기고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집실도 두근두근합니다!

월간『공군』 개편 방향

역사의 공군

전문성을 갖추고 공군을 기록하다.

월간『공군』은 공군의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공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는 매체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군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소재이죠.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인 만큼, 공군의 역사에 대해 더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공군』이 그 자체로 공군의 역사자료라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70년 후의 후배 공군인들이 지금의 공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담고 기록하겠습니다.

공군인의 공군

공군인이 만들고 공군인을 만나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공군인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공군인을 만나는 월간『공군』이 되고자 합니다. 장병들이 참여하고 집필하는 코너를 늘리는 한편, 이시대 공군 장병들은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들여보겠습니다. 월간『공군』에서는 공군 장병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공군

독자를 향해 귀 기울이다.

월간『공군』은 독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월간『공군』 편집실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에 두 귀를 쫄긋!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월간『공군』이 잘 전달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읽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든지 더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롭고 뽀뽀해진 독자 엽서로 동참해주세요!

볼거리의 공군

소장욕구를 자극하다.

모름지기 월간지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장하고 싶은' 볼거리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월간『공군』은 사진/디자인/웹툰/일러스트 등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독자 여러분들께 더 많이 선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자세한 기사로, 때로는 소장하고 싶은 시각 콘텐츠로 꾸며질 월간『공군』을 기대해주세요.



월간 공군 편집실은 월간『공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작년 12월 12일 <월간『공군』 홍보발전 방향 공모전 시상식·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연재 코너 변경_신규



연재 코너 변경_종료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월간 공군 편집실이 발로 뛰며 전해드렸던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이제 공군사를 전해드리는 일은 전문 필진에게 맡기고 퇴장합니다.

Play the Fly

재미있는 게임에도 엔딩이 있듯, Play the fly도 그 막을 내립니다. 아쉬운 마음은 그동안 소개받은 게임을 하며 달래봐야겠네요.

재즈가 들린다

웬지 어렵게 느껴지던 장르 '재즈'를 재미있게 풀어주던 코너였죠. 덕분에 많은 독자분들의 플레이 리스트에 재즈 비율이 늘어났다는 소문이?

Fitness

Fitness는 우리의 걸을 떠나지만, 지금까지 배운 건강 상식들은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남기기로 약속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Letters to Editor

월간 『공군』이 독자와 소통하던 자리였던 Letters to Editor는 '마음의 소리'로 개편되면서 종료됩니다.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AF

생활 타이포그래피

"내가 만든 발표자료는 왜 이상해보일까?", "공지사항에 올릴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생활 속, 업무 속 디자인에 관한 기초적인 고민들을 해결해드립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자인 이야기!

내 옆의 공군인

내 옆의 평범해 보이는 그 장병, 사실 마음속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장병들을 멋진 사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주의 이해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우리 공군! 먼 옛날 하늘을 꿈꾸던 선배 공군인들처럼, 우주 이야기에 마음 설렜 시간입니다. 월간 『공군』과 함께 광활한 우주로 떠나봅시다.

지피지사 공군인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내가 모르는지조차 몰랐던, 공군 태동기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공군인의 마음 건강

규칙적인 운동에 균형잡힌 식사! 건강한 몸을 챙기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 공군인 마음 건강 프로젝트!

기준의 기준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긴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 그러나 교안을 작성하는 장교의 마음속에는 사실 B급 감성이 꿈틀거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의 정체를 월간 『공군』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날, 우리 하늘

공군의 7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는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조금은 색다르게 대한민국 공군사의 사건들을 짚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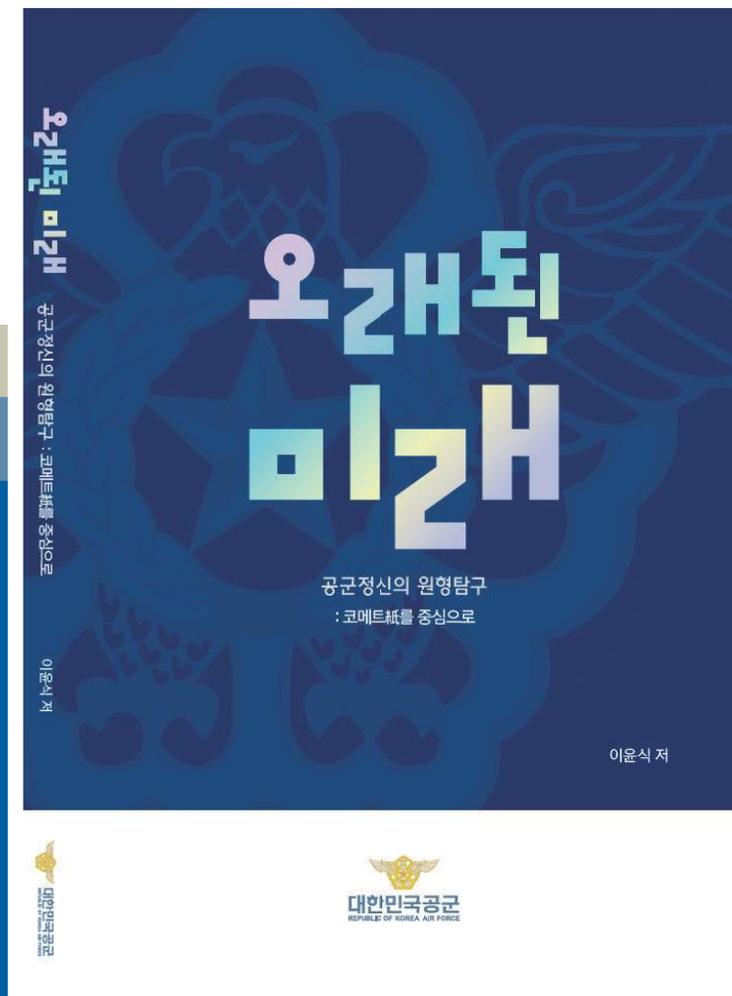
마음의 소리

이번 호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내 옆의 전우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공군의 어제 : 『코메트』와 『오래된 미래』

‘대한민국 공군’이 세상에 태어난 지 70년. 사람의 나이로 70세는 ‘중심소욕 불유구(마음에 따라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라 하여 ‘완성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군에게 70주년이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 ‘70번째 성장기’이다. 공군이 가진 끝없는 성장동력의 원천에는 창군 초기 선배 공군인들이 남긴 ‘공군의 정신’이 있다.



『오래된 미래』 표지

아직 70주년이 되기 전, 공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장병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철학과 문화를 고민했다. 이 고민은 창군기 선배 공군인들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다. 선배 공군인들이 남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인식이 강한 정신전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은 2015년부터 공군역사발전자문위원이자 항공사 전문가인 이윤식 작가와 함께 『코메트』 44권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4년여의 노력은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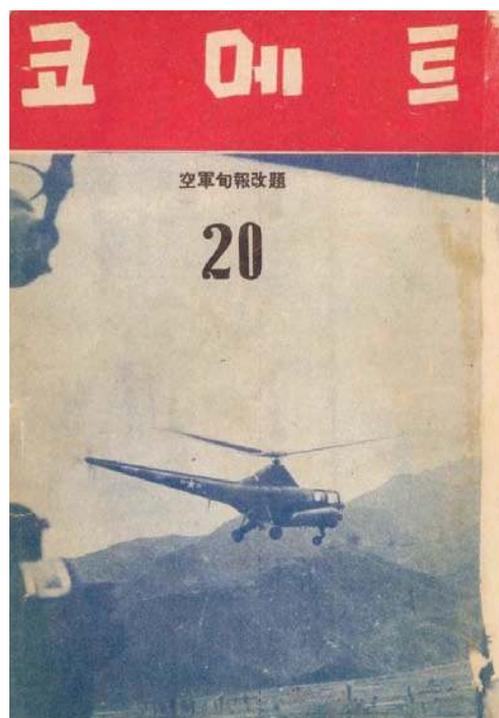


초창기 선배 공군인들이 남긴 문화유산 『코메트』

『오래된 미래』는 『코메트』에 담긴 공군 전 분야의 초창기 역사를 조명하는 책이다. 따라서 『오래된 미래』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코메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메트』란 월간 『공군』의 전신으로서, 공군본부에서 운영하던 중군문인단 소속 문인들과 공군인들이 함께 창간한 공군의 기관지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발행되었던 『공군』 창간호와 전쟁 중 발행되었던 「공군순보」로부터 이어진 『코메트』는 1952년 제1호를 시작으로 1960년 제44호까지 발간되는 동안 초창기 공군인들과 유명 문인들의 군인정신, 사생관, 개척정신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역사사료이자 대한민국 역사에도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다.

『코메트』에는 조종사들의 일기와 그들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당대 유명 문인들의 문학 작품 등 다른 책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생생한 공군사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6·25전쟁이라는 난국에서 조국을 구하고자 헌신했던 선배 조종사들의 출전기는 그야말로 혜성(Comet)처럼 강렬한 느낌을 준다. 또한 우리 공군과 유엔 공군의 근황 및 사진 화보, 국제정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 공군인들의 활약에 대한 기록 등 기관지 성격에 충실한 글과 함께 당시 서구 철학 사상에 대한 소개와 문학작품, 만화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고 다채로운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현재 공군은 월간 『공군』 아카이브(www.afzine.co.kr)를 통해 『코메트』 전권의 PDF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문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고 자료가 오래된 탓에 이를 직접 읽으며 감동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이에 『코메트』의 높은 접근 장벽을 허물고, 공군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한 책이 바로 『오래된 미래』이다.



『코메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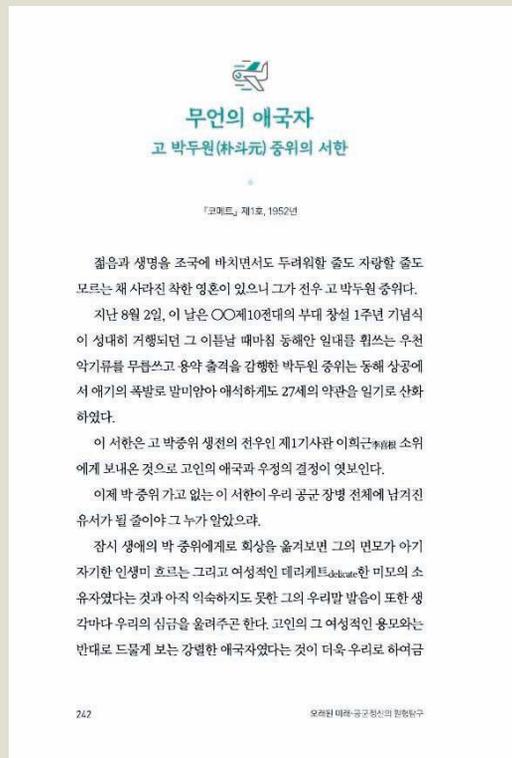
『코메트』의 감동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는 철학을 전공한 이윤식 작가가 『코메트』를 해설한 <공군정신의 원형탐구 : 코메트誌를 중심으로>와 『코메트』 속에 담긴 수백 편의 글 중에서 현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엄선해 번역한 <다시 읽는 코메트 1, 2>로 이뤄져있다.

<공군정신의 원형탐구 : 코메트誌를 중심으로>에는 ‘초창기 공군의 사상’, ‘첫 출격에서 백 회 출격까지’, ‘공군 각 병과들의 개척정신’ 등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공군 창군기와 6·25전쟁에서 나타나는 공군인들의 철학과 사상, 정신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는 월간 『공군』의 <공군의 철학과 사상> 코너를 관심 깊게 읽어왔던 독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이윤식 작가는 총 44권의 『코메트』를 분석한 뒤, 수백 편의 글 중에서 현대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엄선해 논단 34편, 정훈(정신전력) 18편, 조종 18편, 정비 8편까지 부록 1권에 담았다. 또한 각 특기별 원고와 시, 수필, 소설 및 수기 등을 장르별로 정리하여 부록 2권에 담아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89회 출격 후 공중에서 산화한 박두원 중위가 마지막 출격 전 동료에게 쓴 편지, 자폭으로 적을 막고 전사한 김현일 대위 추도회 대화록, 수많은 공군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조지훈, 박두진, 구상, 최인훈 등 유명 문인들의 작품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초창기 공군에 관심이 있는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코메트』의 원고를 한글로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코메트』 제1호 78쪽과 이를 한글화 해놓은 『오래된 미래』 부록 1권 242쪽. 『오래된 미래』를 통해 <무언의 애국자 : 고 박두원 중위의 서한>을 편하게 한글로 읽을 수 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이윤식 작가

이윤식 작가는 1999년 소설 「거미」로 등단했다. 소설가가 되기 전인 1991년부터 항공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으로 자료 조사 및 연구·저술활동을 해오던 중, 2006년 공군 창설 7인 중 한 명인 최용덕 장군의 평전 집필 작업을 맡게 되면서 공군과의 본격적인 연을 맺었다.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공군본부, 2008),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 창간사, 신화의 시간』(비씨스쿨, 2012) 등 다양한 항공독립운동사 및 공군사 관련 저술활동을 이어오던



『오래된 미래』 발간 기념회에 참석한 이윤식 작가

이윤식 작가는 2015년부터 공군본부 정훈공보실과의 협력 아래 『오래된 미래』 집필을 시작했다.

장장 4년에 걸친 작업은 절대 쉽지 않았다. 방대한 양의 『코메트』를 세세히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작년 11월 열린 『오래된 미래』 발간 기념회에서 이윤식 작가는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군 기관지임에도 유명 작가들의 글과 장병들의 자유로운 기고를 실었다는 점에서 『코메트』를 주목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에 한자투성이긴 하지만 당시 공군의 실상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쟁을 바라보던 같은 문인들의 글을 볼 수 있어서 벽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코메트』에 담긴 공군의 철학과 사상은 단지 조종사정신, 군인정신, 항공전력 사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메트』는 고급 수준의 문학적 성격이 짙은 종합교양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준이 높고, 선진 항공국가들의 전력과 기술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 우리 공군이 지향하려는 이상과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정치, 외교적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도 공군의 근본적인 사상과 가치들이 바뀐다고 보지 않으며, 그러한 점을 공군인들도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당시 공군 정신을 ‘완결’ 짓는 글이 아니라 그 ‘시작’이며, 이 책이 공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군 70주년 기념, 『코메트』 전권 한글화 프로젝트 시동

『오래된 미래』에 수록된 원고들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코메트』의 다른 내용도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글화되지 않은 『코메트』를 읽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조차 ‘깨알 같은 글씨에 한자투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코메트』를 편하게 읽기 위해서는 한글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에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은 창군 70주년을 맞이하여 『코메트』 전권을 한글화하여 E-Book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진행

할 계획이며, 원고의 양이 방대한 만큼 최소 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모든 파일을 인터넷 전자도서관에 탑재할 예정이다. 독자들은 깔끔하게 한글로 정리된 E-Book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창군기의 공군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공군은 대학교 및 연구소와 같은 민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초기 공군사와 『코메트』의 문학·예술적 가치도 연구를 통해 밝혀나갈 예정이다. AF

우주를 향한 공군의 위대한 날갯짓 공군의 오늘 : SAP 2023

지난해 8월 9일, 미국 행정부는 기존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름다운 별들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우주가 어느덧 새로운 전장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공군도 우주분야 발전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Space Action Plan 2023(이하 SAP 2023)'을 수립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공군의 야심찬 계획, SAP 2023이란 무엇일까?



최근 우주정책과는 우주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핵심과제 SAP 2023을 수립했다. 좌에서부터 우주전략담당 조태환 중령(진), 우주정책담당 조성민 대위, 우주발전처장 이성섭 대령.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 팸플릿. 우주에 대한 이해와 공군의 발전 계획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23년까지 달성 가능한 핵심과제, SAP 2023

AF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공군에게 우주가 중요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우주정책과 우선 우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기회의 영역입니다. 최첨단 항공력을 보유·운영하는 공군의 입장에서는, 우주자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우주감시체계’와 타격무기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찰·항법위성’의 중요성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주영역은 전장의 공간으로 잘못 활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우주공간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AF [정책·전략] 최근에 SAP 2023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SAP 2023의 근간이 되는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와 SAP 2023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주정책과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와 공군 기본정책서, 공군전략서 등을 토대로 2045년까지의 공군우주력 발전 계획 및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주전략·우주전력·우주인력의 발전방향을 각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SAP 2023은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의 중·장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책·전략, 전력, 조직, 인력·교육, 연습·훈련이라는 5대 분야에 SWOT 기법¹⁾을 이용해 각각 5개씩,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태환 중령(진)과 조성민 대위가 SAP 2023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의미하며, SAP 2023에서는 특히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 공군 우주력 수준 등을 고려했다.

AF [전략] SAP 2023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19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주정책과 2019년에는 SAP 2023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군 우주전문가로 구성된 공군 우주력 발전 위원회가 신설되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이하 광학감시체계)가 전력화됩니다. 특히, 광학감시체계는 ‘공군 최초의 우주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AF [전략] ‘공군 최초의 우주전력’이라니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주정책과 광학감시체계를 비롯해 고출력레이저 위성 추적체계(이하 레이저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이하 레이더감시체계)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모든 위성을 감시하는 ‘우주감시전력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학감시체계는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악기상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레이저추적체계는 정확성이 높지만 역시 악기상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레이더감시체계는 전천후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2023년까지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신설하여 광학감시체계를 활용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나머지 체계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SAP 2023 5대 분야 및 핵심과제

분야	핵심과제
정책·전략 Cooperation	공군 우주력 발전위원회 신설,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 정례화 등 5개 과제
전략 Reconnaissance	우주감시체계, 초소형 전술위성 체계 등 5개 과제
조직 Infrastructure	우주정보상황실 확대, 감시정찰 전력 운영조직 신설 등 5개 과제
인력·교육 Speciality	우주전문인력 양성·인사관리·교육 등 5개 과제
연습·훈련 Exercise	합동 우주COP 구축, 한·미 우주 분야 연습(Space Flag) 신설 등 5개 과제

제13회 공군-한국천문연구원 확대협의회가 지난해 10월 31일 거창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우주상황인식 대응, SAP 2023 공유 및 핵심추진과제 협력 등을 주제로 민·군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AF [조직] 그리고 보니 2019년 9월에는 ‘위성감시통제대’도 신설되는군요.

우주정책과 그렇습니다. 위성감시통제대는 앞서 말씀드린 광학감시체계를 비롯해, 향후 전력화되는 우주감시전력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AF [조직] ‘우주정보상황실’을 ‘우주정보융합실’로 확대 편성한다는 내용 또한 눈에 띄네요.

우주정책과 현재 우주정보상황실은 미(美)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학감시체계가 전력화되고 위성감시통제대가 신설되면, 이제 우리 공군에서도 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까지 모두 받기 때문에, 우주 정보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곳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AF [인력·교육] 각 핵심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교육 분야에서는 ‘우주전문인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주정책과 우주전문인력은 우주에 관해 특별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말하며, 국내외연수자·학위 소지자 및 우주업무 유(有)경험자 중에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에는 총 75명의 우주전문인력이 있으며, 이들은 특기부호에 S가 붙습니다. 향후 인력 풀(Pool)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

직까지는 특별한 의무나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직 분야의 ‘우주전담부서 편성’이나 인력·교육 분야에서 ‘우주전문인력 인사관리 개선’ 등은 이들에 대한 의무와 혜택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AF [연습·훈련] 타군과의 유기적인 협동도 인상적입니다.

우주정책과 일례로 합동 우주COP을 구축하게 되면 전 군 차원에서 우주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우주기상과 우주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육·해·공 및 해병대도 지금보다 더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AF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차근차근 기틀을 쌓아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정책과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전력 분야의 ‘초소형 전술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시작해도 최소 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우주 분야의 발전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항공‘우주군’이라는 목표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AF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공군의 우주력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주정책과 우선 미국은 우주개발의 선두주자로 약 800기의 인공위성과 다양한 우주상황인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군’이라는 별도의 군종 창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뛰어난 로켓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요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강국으로의 제도약을 꿈꾸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자체 위성항법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위성 및 우주무기체계 개발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자체 군용위성은 물론, 자체 항법체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발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은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을 목표로 여섯 번째 군(육·해·공·해병·해안경비대·우주)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AF 우주발전의 첫 주자로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우주정책과 우주 분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우주전력 또한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업무 추진을 위한 동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항공전력에 비해 우주전력 획득은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고요.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과 SAP 2023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관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 애로사항들은 점차 우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높아지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아늑해진다. 오히려 그곳에 닿기까지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그럴 것이다. 하늘을 꿈꾸며 공군이 태어난 지 70년, 여기 다시 우주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그 거리를 좁히고자 애쓰는 공군인들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다. 과연 2023년에 그려질 항공‘우주군’은 어떤 모습일까?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공군의 꿈. 이제는 공군의 ‘현재’가 되어가는 중이다. **AF**

르포르타주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



글
대위 박지완



사진
상사 김기호(5비)
하사 노현우(5비)



왼쪽부터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정통제사
최진영 중사, 김창현 중사, 이종영 상사

First There

르포르타주 -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



군대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특수부대가 아닐까 싶다. 특수부대에게만 지급되는 특별한 복장, 장비 등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고, 특수부대원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곧 로망이다. 육군에는 특전사가, 해군에는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가 있다면 공군에는 공정통제사(CCT)와 항공구조대(SART)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의 공정통제사, CCT(Combat Control Team) 장병들을 만나본다.



임무지역에 도착하자 강하를 실시하는 CCT 대원



CCT 장병들이 임무지역에 침투하여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일당백(一日百). 이들을 보면 자연스레 이 단어가 떠오른다. 무엇을 맡겨놓아도 끝끝내 임무를 완수해 낼 것만 같은 이들. 압도적인 능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훈련량으로 승부하는 공군의 자랑스러운 특수부대, 바로 공정통제사(CCT)들이다.

공정통제사는 공군의 전술공수 작전 및 특수 작전 임무를 위해 특수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부사관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다. 이들은 30여 명 정도의 극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된 이들 중에서도 다시 선발된 장병들로만 구성된 이들은 그야말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다. 이들은 목표지역에 침투하여 공중전력과 지상전력을 연계시키기 위한 강습지역 설치 및 운영, 항공기 유도 및 통제, 통신시설 유지 및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요원들과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CCT 대원들.
이들은 수상침투에도 능숙하다.





공정통제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상상 이상이다. 적진에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임무에 따라 필요한 장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진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면 아군이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초기 관제 임무, 화물 및 병력 투하를 통제한다. 초기 관제 임무에서 필요한 TACAN¹⁾을 설치하고 항공기와 교신한다. 고도와 바람, 날씨, 지형, 전투상황을 고려해 항공기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병력 또는 화물을 정확한 장소에 투하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공정통제사 요원들이 교신용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적진에 침투해 현장을 제압하고 나면 장비를 설치해 항공기와 교신하는 것이 공정통제사의 가장 주요한 임무가 된다.

공군의 공정통제사는 특별전형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양성한다. 선발은 5km 달리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수영 등의 체력 평가와 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이후 항공관제교육과 기초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일단 공정통제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공정통제사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육군 특전사의 낙하산 강하 및 고공 훈련을 수료해야 하고, 해군에서 UDT/SEAL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공군 장병이지만 3군의 특수부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응급구조, 산악지형 극복, 해상척후, 낙하산 포장교육, 화력유도, 암벽등반, 잠수의무, 대테러 등 수료해야 할 교육이 열 가지가 넘는다. 그렇기에 한 명의 공정통제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약 5년 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공정통제사 요원들이 휴대용 TACAN(Tactical Air Navigation, 전술항법장비)을 설치하고 있다.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정통제사인 김창현 중사

1) 항공기에 지상국으로부터의 거리 및 방위를 제공하는 항법 시스템으로 항공기에 탑재된 TACAN 장치에서 지상 TACAN의 채널을 맞추면 자동으로 지상국에 전파가 보내지고, 지상국의 응답신호에 의해 지상국과의 방위와 거리 및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알 수 있다



01



02



04

- 01. 어린 시절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다는 최진영 중사. 그의 다부진 체격과 빛나는 눈매가 CCT를 더욱 믿음직하게 했다.
- 02. 운명처럼 공정통제사가 되었다는 김창현 중사. 그는 돌이켜보면 자신이 CCT를 선택한 게 아니라 CCT가 자신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 03. 최진영 중사가 전투복에 부착하는 패치들. 그가 획득한 수많은 자격들이 눈에 띈다.
- 04.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최 중사(우)와 김 중사(좌). 서로 꼼꼼하게 확인하며 돕는 모습에서 이들의 끈끈함이 묻어난다.

벌써 10년차를 넘어서는 최진영 중사는 각종 임무에 투입된 경험 많은 공정통제사다. 그는 2012년,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필리핀으로 초기 관제 임무를 수행하러 갔던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쓰나미로 모든 것이 폐허가 돼 구조 임무를 수행할 항공기가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공정통제사가 초기 관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직접 눈으로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던 현지인들의 눈빛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고, 내가 공정통제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259전술공수지원대대에서 공정통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현 중사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부대원을 꿈꿔왔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군인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부대에 공정통제사 선배들이 지원을 권유하기 위해 왔을 때, ‘저거다!’ 싶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기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특수부대원, 그것도 공군의 CCT라는 글자를 내 팔뚝에 새길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여러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정통제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김 중사의 말이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이 자신을 보고 공정통제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했다.

공정통제사는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25,000ft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뛰어내린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가벼운 몸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임무에 필요한 온갖 장비를 갖추고 적진으로 뛰어든다. 돌격소총과 야간투시경, 각종 통신 장비 등은 기본이다. 해상으로 침투할 때에는 잠수복을 착용한다. 공정통제사는 임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부여된 임무와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와 복장을 선택하고 있다.

공정통제사는 극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끈끈함도 남다르다. 공군의 0.001%라는 자부심이 더해져 그들의 빨간 베레모는 더욱 빛이 난다. 특수 재질로 제작된 전투복에는 태극기와 공정통제사들이 갖춘 무수한 자격들, '대한민국 공군'과 빛나는 이름 석자, 그리고 'CCT'라는 명예가 함께 부착돼 있다. 누구나 CCT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CCT가 될 수는 없다는 그들의 이유 있는 자부심. "First There"라는 그들의 슬로건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AF

강하를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의지를 다지는 CCT 대원들.



항공기에서 강하를 준비하고 있는 CCT 대원들. 이들은 하늘에 몸을 던지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해낸다.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제32화

본질의 발견을 추구하는 기획자

엘레먼트 컴퍼니 대표 **최장순** (학사 109기)

GUCCI, 인천공항,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CJ, CU, LG……. 지난 10여 년 간 국내외 유수 브랜드에게 브랜드 전략과 네이밍,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을 컨설팅한 엘레먼트 컴퍼니 최장순 대표. 여러 기관과 업체에서 그를 인터뷰해왔지만, 최장순 대표는 “월간 『공군』과 인터뷰를 하게 된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공군장교와 신문기자를 거쳐 전문 기획자가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장순 대표가 쓴 <기획자의 습관>(2018)과 <본질의 발견>(2017). 책에는 기획에 관한 그의 독특한 노하우가 가득하다.

‘기획은 기획자만 하는 게 아니다. 식당을 고르는 일, 메뉴를 선택하는 일, 퇴근 후 만날 친구를 정하는 일, 영화를 고르는 것부터 주말 일과를 정하는 일. 모두가 기획이고, 우리는 매일 기획을 한다.’ 엘레먼트(LMNT) 컴퍼니 최장순 대표가 최근에 펴낸 책 <기획자의 습관>에 나오는 말이다. 맞다, 우리 모두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기획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기획’만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법. 최장순 대표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김포의 ‘아라대교’의 네이밍 또한 그의 작품. 업계의 탁월한 전문가인 그는 공군 복무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독불장군’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

AF_ 공군에 대한 애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입대 계기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장순 대표_ 전역 후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유학자금을 스스로 벌어야 했기에, 장교로 복무하며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죠. 공군 장교를 지망한 계기는, 아버지가 공군 성남기지 정비사 출신이세요. 병으로 입대하셨고, 중사로 전역하셨죠. 그래서 저를 공군사관학교에 보내려고도 하셨는데 그때는 많이 반발했고, 또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입대를 결정할 시기가 되니 아버지의 권유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입으셨던 공군 제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꼭 집을 만든 에피소드는 없지만, 소소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사령부 신병교육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훈련병을 위해 규칙을 위반해가며 통화를 시켜줬던 일, 일부러 엄하게 교육하고 밤에 라면 파티를 해주었던 일 등. 한창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여러 이벤트들을 기획했는데, 한번은 훈련병들이 수료식 전날 건빵을 모아 편지와 함께 선물해주더군요. 그때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장순 대표가 <본질의 발견>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장순 대표는 공군 복무 시절
교육사령부 신병교육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AF_ 최 대표님을 거쳐 간 훈련병들은 기본군사훈련단 시절을 아름답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 대표님이 공군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나요?

최장순 대표_ 그럼요. 저는 군에서 얻은 게 많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꽤나 극단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입대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군가를 4절까지 불렀는데요. 혼자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 했을 일인데, 동기의 손을 잡고 하니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이전에는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기도 했는데 동기들과 훈련을 받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교관을 하면서 발표의 기본기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중이나 기업을 상대로 강연을 나가는 일이 잦는데, 군 시절의 경험 덕분에 적어도 대중 앞에 설 때의 두려움은 없죠.

AF_ 최 대표님에게 공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최장순 대표_ '전환점'입니다. 우선 입대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항상 만성두통에 시달렸는데 입대하고 두통이 사라졌어요. 또, 이전에는 시간이 남아도 놀 줄 몰랐는데 군에서 복무하며 노는 법도 배웠죠.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도 했고요(웃음). 앞서 말했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공군을 제일 좋아하고, 공군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획자의 조언

AF_ 전역 후에는 신문 기자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장순 대표_ 원래 유학 준비를 한 것도 교수 임용을 꿈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학을 포기했고, 신문 기자로 일하게 되었죠. 교수와 연구자들의 포질을 전문으로 취재했는데, KBS <추적 60분>과 공동으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편집권 문제가 발생하여 사퇴하게 되었고, 이후 브랜드 회사에 입사했죠. 한 7년 반쯤 일한 뒤 독립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엘레먼트 컴퍼니를 차렸습니다.

최장순 대표와 엘레먼트 컴퍼니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AF_ 공익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도 하신다고요.

최장순 대표_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입니다. 모양, 의미, 발음 등이 조금이라도 유사하면 등록할 수 없는데, 쓰지도 않는 상표를 미리 등록해놓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언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브랜드 네임)이 필요한 복지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위해 2009년에 매아리(매일 부르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를 창단했습니다. 첫해에 복지단체 13곳에 새로운 이름을 찾아줬고, 지금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시간을 쪼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F_ 오랫동안 기획자로 일하셨는데, 기획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나아가 공군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장순 대표_ 잘 듣고 잘 정리하는 '경청'과 '메모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각 또는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군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전문성'과 'R&R(Role&Responsibility)'를 꼭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시만 하고 소통은 할 줄 모르는 지휘관 분들이 있는데, 부서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군의 본질과 관점을 정확히 제시해줘야 합니다. 병사를 비롯해 하위 계급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공군의 존재이유, 군생활의 의미를 정의해줘야 합니다.

AF_ 공군에는 창업을 꿈꾸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최장순 대표_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꼭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사무실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인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잘 듣고 받아 적어야 한다고 전하고 싶군요.

AF_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최장순 대표_ '브랜드'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브랜드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어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동료들과 제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에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F_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장순 대표_ 개인적으로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대중적 기반과 실체를 좀 더 갖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독자들이죠. 여러분이 공군에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F**





그날, 우리 하늘

식민지 하늘의 첫 비행



▲ 오토리 호의 용산연병장 지상 활주

1913년 4월 3일 오후 1시 경성(京城)의 용산연병장, 6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하늘에는 나라하라 산지(奈良原三次)와 시라토 에이노스케(白戸榮之助)가 조종하는 복엽기, 오토리(おほとり)호가 한 대 떠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3분 정도의 짧은 비행을 마친 비행기가 연병장에 내려앉았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날아오른 장면이었다.

이날의 행사장에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를 비롯한 식민지배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나라하라 산지는 일본 해군 소속으로서 정부의 지원 아래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체 제작한 비행기로 순회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날의 비행은 일본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이벤트였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난다는 것, 당시 조선은 이를 서양인

들이나 할 수 있는 신기한 일로 여겼다. 그렇지만 식민지의 대중들은 이날의 이벤트로 일본 역시 비행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구한말의 현실과 대비되는 일본의 국력 과시는 이날의 비행에서 더욱 돋보였다. 즉 이날의 비행은 ‘문명화’를 위해 일본의 ‘시정(施政)’이 불가피하다는 이미지의 구현이었다.

일본이 이날의 비행에서 의도했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 무단통치기간에도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자발적인 순응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의 비행이 성공하자 총독부는 일본 비행사들의 시범비행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이듬해 다카소우 다카유키(高左右隆之)는 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초청으로 용산연병장에서 시범비행을 열었다. 다카소우는 8자로 비행하는 등 나라하라의 비행보다 월등한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서 오자키 유키테루(尾崎行輝)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기념하는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의 행사에 맞춰 시범비행



▲ 오토리 호의 착륙

을 시행하면서 창공에서 경성의 번영을 바란다는 선전지를 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궁궐의 상공을 비행하는 등 과거 조선의 권위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었다.

조선 내 시범비행은 일본인만의 몫이 아니었다. 1916년부터 일본에서 곡예비행을 펼쳤던 미국인 아트 스미스(Art Smith)는 이듬해 조선에서 공연 형식의 순회비행을 기획해 실행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경성에서 공연한 뒤, 평양(平壤)에서 한 차례 비행했다. 그의 비행에 관해 매일신보는 “비행가로 세계 제일이요, ‘버드보이’, 새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스미스 비행가”라 하면서 상찬했다. 미국인에 의한 비행 공연은 곧 과거의 시범비행과 연계해 일본이 서양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증빙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칭다오(靑島)에 주둔한 서양 세력인 독일군에게 비행기를 활용한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도 조선에 전해졌다. 비행은 일본의 강한국력을 드러내는 지표였다.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게 순응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일본의 조선 내 시범비행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인식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1920년대에 이뤄졌던 안창남(安昌男)이나 장덕창(張德昌)의 비행은 이때의 경험을 동기로 한 것이었다. 3·1운동 후 일본은 문치교화(文治教化)의 통치방침으로 전환하고서 안창남 등의 비행을 지원했다. 이들의 비행은 일본의 지배에 순응한 조선인들이 문명의 수준에 도달한 가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의 비행이 일본의 의도대로 순

응이라는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비행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 비행사들의 소식과 결부해 일본의 ‘시정’이 없더라도 조선인들이 하늘을 누빌 수 있다는 근거로 여겨졌다.

한편 시범비행의 충격을 기억한 채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항공력을 활용하려는 인물도 있었다.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라고 여겨지는 권기옥(權基玉)이 대표적이다.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던 권기옥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비행기를 활용하면 총독부도 쉽게 폭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김구(金九)의 차남인 김신(金信) 역시 조선 내 시범비행을 보면서 비행에 관한 꿈을 가졌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의도와 다르게 식민지인들은 각자의 현실 구상 속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시범비행의 충격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달성한 과학적 성취를 바탕으로 조선에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식민지 조선의 주체적 인식에서 재해석을 거쳐 수용되었다. 누군가는 일본에 적극 동조해 ‘문명화’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문명의 결과물을 조선의 권리 보장, 나아가 독립운동에 활용하고자 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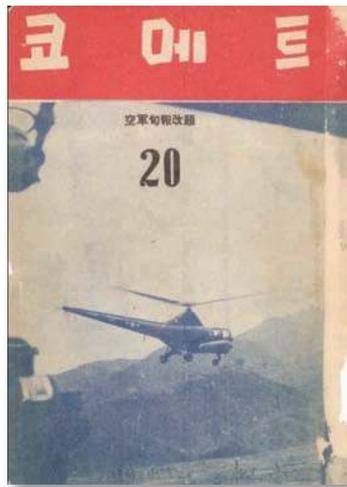
▲ 아트 스미스의 곡예비행 기사 (매일신보 1917. 9. 15.)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공군의
철학과
사상

공군의 항공사상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1호기가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공중급유기는 공군전력의 전략 전술상 지극히 중요한 외교·군사 무기 중의 하나이다. 『공군』 창간호(1950)에 처음 공중급유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이래로 68년 만에 그 꿈이 실현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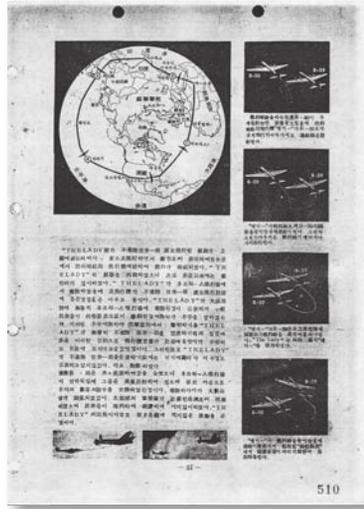
1950년 『공군』 창간호 표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4월에 발행되었다.
『공군』의 계보는 『공군순보』를 거쳐 다시 『코메트』로 이어진다.

공중급유의 개념과 시도는 이미 1920년대부터 있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하였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우리 공군에게는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신생국에서 선배 공군인들의 선견지명과 원대한 꿈으로 탄생한 우리 공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탄생한 이 귀하고도 소중한 공군을 대할 때 공군의 일원으로서 독립에 보답하기 위하여 공군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여하히 육성하여 갈 것이며 어떻게 발전될 것을 원하며 각자 스스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추상적이거나 간단히 고찰하여 볼까 한다.”(공군소령 한용현(韓鏞顯), 『공군독립소론』, 『공군』 창간호, 1950)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급유에 대한 관심 표명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공군』 창간호에 나타났다. 『공군』 창간호에는 공중급유기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각종 비행기종들이 언급된다. 당시 공군인들은 선진국의 공군을 바라보며 우리만의 원대한 공군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이러한 공군인들의 지향은 오세창 선생의 공군독립과 『공군』지 창간을 축하하는 글, ‘뇌굉구소, 위진사해(雷轟九霄, 威振四海/굉음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 위엄이 온 바다에 떨친다)와 ‘항공대한의 기염 드높다’(1949년 9월, 제1회 항공의 날 기념식)와 같은 구호처럼 정신적으로는 부단한 공군정신의 기개와 공군전력무기의 현실화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저 창공과 같이 맑고 바람과 같이 작렬한 기백이 곧 자랑이며 또 행복이었다. 이 자랑과 행복을 어찌 조그만 한 유혹쯤에게 내어맡길까 보나. 유혹은 운동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스며들런지도 모른다. (중략) 우리를 맑고 힘차게 해 주는 운동은 곧 우리들 자신이 자율적으로 흘리는 땀과 우리들 자신을 추상 같이 매질하



『공군』 창간호에 실린 공중급유기 관련 기사



독립운동가 오세창 선생의 『공군』 창간 축하 문구

는 긴장 속에 있다.”(정훈감 이종승 중령, 『권두언』, 『코메트』 제13호, 1955년)

전 공군참모총장인 고 장지량(張志良) 장군은 제트기(당시 F-86) 보유의 증대를 위한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유는 보루,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코메트』 제21호, 1956년)라는 제하에서 소련, 중공뿐만 아니라 북한 등 주변국의 항공력 강화가 한국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주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이 전투력의 차이가 일소됨으로써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 한국인은 그들 자신의 전투의 대부분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스탕 비행단을 즉시 제트기로 전환하고 제트 비행단을 3, 4개 더 증설함으로써 우리의 공중전투력을 증강하여야 할 것이다.”

선배 공군인들의 이와 같은 항공정신은 또한 군인정신과도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다. 작전국장인 공군 소령 한해남(韓海南)은 「군인과 인생관」(창간호 『공군』, 1950)

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군인으로서 국가민족의 간성에서 국민으로서 책임, 청년으로서의 책임,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사(죽음)로써 완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 아닐 것이다. 유구한 생은 이 책임을 완수한 자에게 있을 것이니 소위 세상에 이름 남긴다는 것이 곧 유구한 생일 것이며 영혼의 불멸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현하 우리 군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의명분에 유구한 생을 얻어 국가존망지추에 수호신이 되기를 바랄 것이며 십계의 향악(享樂)을 경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군 선배들의 염원처럼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공군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무기를 다루는 정신력이 와해되거나 약화된다면 그간 쌓아올린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항공사상은 단순히 기계의 확충과 그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정신력과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함께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AF

월간 『공군』 홍보발전방향 공모전 결과

최우수



제목: 24시간 영공을 지키는 푸른 눈들

우수



제목: 월간 공군 강·약점 파악

장려



제목: 공군전역실록

입선

일병 박성일
51전대

병장 우정균
공사

병장 최서영
18비

일병 김인하
11비

상병 이태성
국·근지단

상병 황성민
5비

병장 김재영
5비

상병 이현범
18비

일병 이경호
18비

일병 송호빈
20비

월간 『공군』 홍보발전방향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월간 『공군』이 되겠습니다.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경영] 결정의 모든 측면에 관한 궁극의 지침서

누구나 잘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만큼 누구나 어려워하는 것이 결정이다.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곧 ‘어떻게 사느냐’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측불가할 것만 같은 ‘결정’에도 공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의사결정 전략을 이끄는 전문가 애니 듀크의 오랜 시간 쌓아온 결정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있다.

스스로 시작해볼 만한 자기관리법부터 주변 사람과 함께 연습하면 더 재미있을 다채로운 결정 스킬들이 책 곳곳에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이 책이 빛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남기기 때문이다. 멈추었던 생각을 180° 전환시키고 잘못된 ‘버릇’을 송두리째 들어나 가치 있는 ‘습관’으로 치환하는 일은, 단언컨대 이 책을 통해 결정을 재정의할 독자들에게 흔치 않은 인생 경험이 되어줄 것이다.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 애니 듀크 / 2018. 8. / 360쪽 / 16,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인문] 하루 30분 인문학 수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오늘의 발걸음

출간 3개월 만에 전 3권 모두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에 연착륙한 《퇴근길 인문학 수업》 시리즈. 집단지성으로 뚝뚝 뭉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지식들이 가득하다. 책의 앞뒤 면지를 활용해 생태학부터 동양 고전에 이르기까지 ‘개념과 관념’을 함께 보여주는 36개의 커리큘럼은 이 시리즈의 상징이다.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골라 수업에 뛰어 들 수 있다.

이 책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여 있던 삶의 자세를 되짚어보며, ‘나’를 벗어나 세상과 조우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현실에 존재하나 모호한 인문학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독자에게 스스로 관념적 사유를 즐기는 차원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퇴근은 일의 마침이자, 일상의 시작이다. 퇴근 후 하루 30분, 인문학 수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백상경재연구원 / 한빛비즈 / 2018.12. / 전 3권 / 각 17,000원, 세트 45,900원



교육사령부, 경상대학교병원 암센터 위문공연

교육사령부는 12월 12일(수) 경상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강당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을 초청해 '공군 교육사령부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문공연은 공군 의장대의 포토존 교차 칼 예식, 공군 군악대의 군악 연주회, 마술사 김유정국의 마술쇼, 트로트 가수 김혜진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희망나눔 콘서트

부와
재하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주관

참모총장은 12월 12일(수)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주관하고 수상부대 및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탑건(Top Gun)에는 11전비 이재수 소령이 선발되었으며, 단체상은 10전비 201대대, 11전비 122대대, 19전비 161대대 및 155대대가 수상했습니다.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 참석

참모총장은 12월 12일(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6·25전사자 합동봉안식'에 참석해 올해 발굴된 국군 전사자를 추모했습니다.





**3훈비,
비상조명등 설치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2월 10일(월) 전시 활주로 및 조명 피폭 시 비상조명등을 최단시간 내에 설치하기 위한 비상조명등 설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전비,
한마음 군가경연대회**

제8전투비행단은 12월 10일(월) 장병 사기진작 및 명량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한마음 군가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5비,
공·육 합동 화생방 훈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2월 11일(화) 화생방 상황 발생 시 타군과의 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 제55사단 화생방지원대와 합동으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6전비,
'18-2차 전투태세훈련(ORE)**

제16전투비행단은 12월 3일(월)~12월 6일(목) 비행단 위기관리능력 향상 및 완벽한 작전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8전비,
대테러 부분 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2월 10일(월) 폭발물 의심 물체를 발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부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전비,
지역주민 대상 봉사활동**

제20전투비행단은 12월 11일(화)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미용·시설보수·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AF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
상병 이승한



별 헤는 밤

야간근무 올라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회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평상시라면 시골에 머무를 때 보았던 별과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랐겠지만, 이번에는 최근에 본 영화 <동주>가 생각났다.

영화의 내용은 윤동주 시인과 그의 절친한 친구 송몽규의 이야기다.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 흑백 영화 속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빛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했다. 격동의 시대에서 지식인으로서, 또 문인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간, 영웅이 아닌 그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인간'.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고,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던 나의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또 후에도 나는 항상 하고자 했던 것들은 뒤로 미룬 채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한 나에게 그들의 삶은 가슴 속 깊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나중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윤동주 시인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때의 그와 비슷한 또래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다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부끄러움을 모르던 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문득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을 윤동주 시인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로서는 암울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그의 고민을 전부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윤동주 시인이 별들을 바라보며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나도 남은 군생활과 앞으로 살아갈 나의 수많은 나날들을,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으로 가꾸어야겠다.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상병 임의령



같은 밤하늘 아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다. 10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는데 퇴근할 때마다 종종 오늘 있었던 일을 내게 말씀해주셨다. 당시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단 텔레비전 속 만화에 더 눈이 갔었다. 물론 아버지 또한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군대 얘기를 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영외관사 주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겁이 무척 많은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용감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다. 내가 연습하기 싫다고 칭얼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내일 훈련 가면 열다섯 밤은 자고 집에 와. 이런 것도 못하면 아빠 없이 엄마는 누가 지킬래? 저 위에 별이랑 달 밝은 거 보이지? 아빠가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무계한 말이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진짜로 아버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관사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자전거 타기에 열중했다. 성인이 된 지금, 다른 건 몰

라도 자전거 하나만큼은 꽤 탄다고 자신할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연 전역하셨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데다가,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전속 같 일이 잦아 사와 전학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춘을 바쳐 자리 잡은 직업을 포기하기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어린 나를 붙잡고 군대 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셨던 이유는, 언젠가 내가 ‘군인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한 당신의 삶의 고통을 이해해주길 바라셨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퇴직한 부사관의 장남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병장 진급을 앞두고 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전역이 기쁘기도 하지만, 가끔씩 초소 위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심란해진다. ‘난 사회로 내던져질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똑같은 밤하늘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별자리를 그리며 야간 비행하는 전투기 소리를 듣자니 아버지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아빠가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화답한다.

“이젠 저도 지켜보고 있을게요. 아버지.”

전술항공중제단 제1군단
상병 안홍석



스스로 빛나는 존재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 중턱에 있어 자동차 소리보다 오히려 비행기 소리를 들을 일이 많으며, 흔하디 흔한 편의점조차 차를 타고 10분을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추측건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이처럼 지극히 조용하고도 심심한 곳에 학교를 지었나봅니다. 그러나 2년간 이곳에서의 기숙생활은 불만 많던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었던 덕에 학업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학교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여기저기 증축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장소가 면학실과 천문관측소입니다. 본관 건물 좌측으로 들어가 영화 <해리 포터>에서나 나올 법한 좁고 괴이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면학실과 천문관측소가 나옵니다. 이 두 장소는 수업이 끝난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께서 올라오시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온전히 학생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지트의 천문관측소가 바로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면학 시작

전, 휴식 시간 등을 통해 천문관측소에 올라가 한없이 조용한 영종도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힐링이었습니다. 이곳을 수없이 찾을 것이라는 선배들의 말이 맞았음을 알게 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힘으로 생활해야 했으며,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도 경쟁상대가 되어야만 하는 친구들과 여러 상황들이 저를 외롭고 두려움에 떨게끔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문관측소를 찾아가했습니다. 주변에 불빛 하나 없고, 어떠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밤하늘에 영롱히 빛나는 별들을 마주하고 있자니 나 자신이 굉장히 작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감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존재여서 역경을 이겨내는 데 힘이 부치지만, 인내하며 성장한다면 더 큰 존재로서 빛나지 않을까?’ 눈앞에서 쏟아질 듯 스스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입시를 모두 마치고 친구들과 천문관측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했을 친구들과 함께, 그날도 역시 쏟아지는 별들을 마주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날 스스로 빛나던 것은 다만 별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학생, 성인이 되어 사회를 빛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신의 빛을 갈고닦고 있는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백의 그림자

- 사랑을 지키는 방법

백(白)은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다. 주인공 은교 그리고 무재는 철거되기 직전의 오래된 전자 상가에서 각자 떨어져 일을 한다. 40년이 된 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생긴 공원은 그들에게 오히려 공포를 준다.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모두 잃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야 그림자가 왜 검지 않은지 알게 된다.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어두운 흑(黑) 대신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할 수 있는 백(白)이 필요하다. 어딘가 섬뜩한 부분은 위태롭게 살아가는 주인공들 그리고 주위 사람의 현실성 없는 설정으로 배가된다. 그림자가 살아 움직여서 발목을 붙잡거나 본체를 집어삼킨다. 아버지는 모자로 변하고, 애완동물이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거는 이 이상한 도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에 설득력을 가진다. 어떤 어둠이 자신을 덮으려는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독자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비록 자기 마음에서 기인하였다고 스스로 탓해보아도 소설은 사람의 탓이 아니라 너무 지독한 세상의 문제라는 듯 무심한 농담을 건넨다.

은교와 무재가 나누는 대화는 줄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 따로 문장부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의 대화를 같이 듣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말했는지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확인한 내용은 동어 반복이거나 사실의 재확인이다. 즉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는 지점은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서서히 수평선에서 가까이 오는 배처럼 형상이 뚜렷해진다. 원

글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병장 이해찬



래 거기 있던 것이 차차 보이는 과정은 인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상이 줄 수 없는, 글 그리고 소설만이 가진 즐거움이다. 처음에 숲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가야할 곳을 잃는데, 그때 꼭 잡은 손이 전부를 말한다. 차가운 현실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관습적인 이야기들은 너무나 비참해지거나 도리어 환상에 젖는다. 하지만 이 소설은 어느 순간에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차오르는 눈물 없이 담담히 보여준다. 이 사랑에는 현실과의 타협이 없고 화해도 없다.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얗게 모든 오래된 것들을 살균시키려는 세상에서 사랑은 땅 밑으로 어두워진다.



백의 그림자
황정은 지음
민음사 펴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갈 곳 잃은 현대인의 지침서

“신은 죽었다.” 이 말로 유명한 니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그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나 안타깝게도 저 말을 통해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나, 그의 대표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 본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러나 인간의 스스로를 사랑하고 항상 더 잘되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좋은 것이라는, 니체의 독보적이며 수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튀는 철학은 바로 뚜렷한 목표 없이 방향하는 현대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차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주 내용이다. 글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으며, 얼핏 보면 난해하지만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되는 내용이 강해서 니체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니체는 고대부터 이어진 이분법적 체계가 아주 틀렸고, 이분법적 질서인 선과 악을 기초로 한 최초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이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선과 악, 몸과 영혼, 내세와 현세 등의 이분법적 질서는 절대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모든 최상의 가치는 우리가 없는 곳에 있거나, 우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에서의 천국, 신체에서의 영혼 등만 신성시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과 우리의 신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이 자

신의 삶에 만족을 못한다고 봤다. 니체는 이런 실체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 말고 현재 확실하게 있는 지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몸에 집중한다면 그 누구도 헛되이 현재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니체는 또한 인류의 욕망을 좋은 쪽으로 보았다. 이는 항상 금욕과 도덕성을 중시한 기독교나 당시 철학자들과는 완벽히 대치되었다. 니체는 항상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인간들을 더 앞으로 발전시키며 더 향상되게 한다고 보았다. 소편하우어처럼 인간의 욕망이 결국 무한히 많은 걸 바라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결말을 본 게 아니라, 그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각 개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자체가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통해 과거의 종교에 지배당한 인간의 해방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신이 아니라 오직 인간 그 자체를 중요시하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글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
일병 김인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민음사 펴냄



서국일 장군을 아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인물도 정작 자기 고향에서는 기억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닐까? 여러분은 서국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국일은 사실 서알보 장군의 중국 이름이다.

사실 서알보라는 이름조차 낯선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분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평할 수 있으며, 공군의 정신적 지주인 최용덕 장군을 있게 한 큰 바위 얼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껏 서알보 장군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우리만 모르고 있던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사 서알보. 잊어버리기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



잠자고 있던 그 이름 서국일(徐國一)

“유레카!” 대만 타이페이 국사관 자료실. 필자는 ‘중화민국 공군총렬록’ 첫 장을 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국일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그동안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에 기록된 한국인은 전상국 비행사와 구양명(김원영) 비행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한국인 서국일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공군총렬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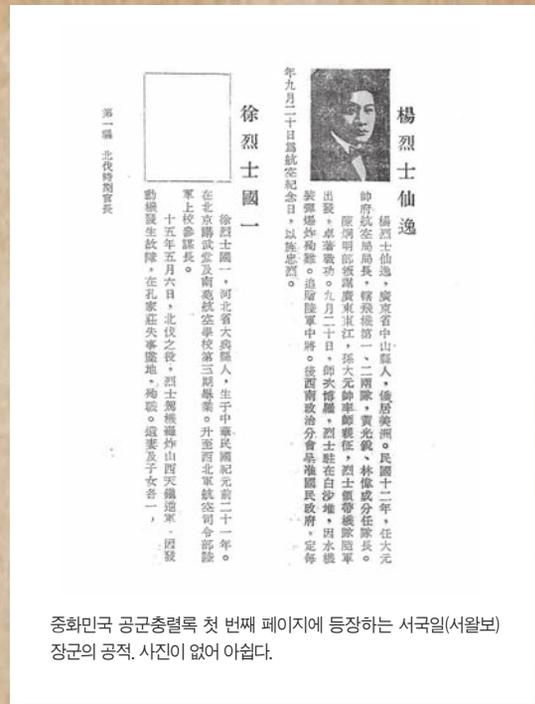
‘서국일 열사, 허베이성 대흥현인, 중화민국 기원전 21년 출생, 북경강무당과 남원항공학교 제3기 필업(졸업), 서북군항공사령부 육군상교참모장(대령참모장), 1926년 5월 6일 북벌당시 비행기로 산서와 텐진의 역도를 공격, 항공기 엔진 고장으로 공가장에서 사망, 순직,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과 딸 각 1명’

필자가 서왈보라는 이름으로 중국 측 사료를 찾았을 때는 그 어떤 단서조차 없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공훈사료관에서 서국일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수십 년간 공군총렬록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서왈보 장군의 기록을 깨울 수 있었다.



서국일 열사가 기록된 중화민국 공군총렬록 표지

1)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 각지의 군벌을 정리하던 북벌시기-중일전쟁 기간까지 공군 소속으로 순직 또는 전사한 인물들의 공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역사서. 공군총렬록 속 한국인은 전상국, 구양명(김원영) 2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서국일(서왈보)과 김은제 등 2명의 한국인을 추가로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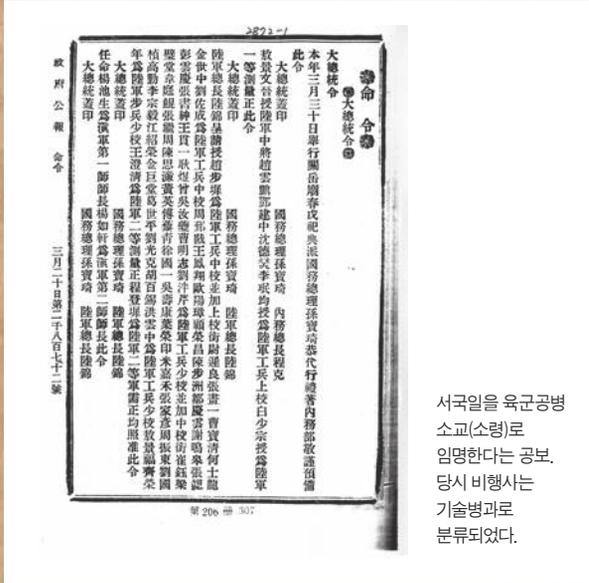


중화민국 공군총렬록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는 서국일(서왈보) 장군의 공적. 사진이 없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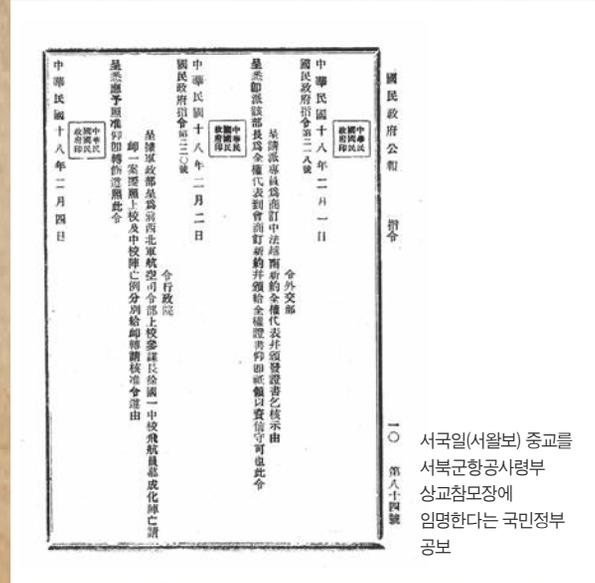
그는 누구인가?

서왈보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의 시작점이면서 중국 공군의 시작이기도 하다. ‘항전前중국항공대사략’에 기록된 서왈보의 행적은 다음의 3가지다. ▲1924년 4월 중앙항공사령부 1대대원 ▲1924년 9월 3일 중앙임시항공대 ▲1925년 3월 서북변방독관공서 항공사령부 참모. 중앙항공사령부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항공사령부다. 서왈보는 3개 비행대대를 모체로 베이징에서 창설된 중앙항공사령부의 1대대원이었다. 직봉강절전쟁 시 중화민국 3대 총통이었던 차오쿤의 지시로 서왈보를 포함해 총 4명의 비행사는 중앙임시항공대를 구성해 루잉상 군벌에 폭격과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중앙항공사령부에 소속된 비행사는 대대장을 제외하고 25명. 총통이 직접 출격을 지시했으니 정예들만 출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왈보는 평위상²⁾이 서북변방독관공서 항공사령부를 창설할 때 핵심인물 8인 중 한 명으로 참가했다. 중국 공군에서 그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는 기록들이다.

2) 중국의 군벌이자 정치가. 안후이 성 출신으로 처음에는 안복파에 속하였으나 뒤에 직례파에 가담하여 1922년의 봉직전쟁에 참가하였고, 산시·허난 도독을 지냈다. 1924년 제2차 봉직전쟁 때에는 봉천파와 손을 잡아 베이징을 점령했다. 1926년 국민당에 입당하고, 서북 국민 연합군 총사령으로서 북벌에 협력하였다. 이후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 군사위원장, 국방최고위원 등을 지냈으나 장제스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서국일을 육군공병 소교(소령)로 임명한다는 공보. 당시 비행사는 기술병과로 분류되었다.



서국일(서알보) 중교를 서북군항공사령부 상교참모장에 임명한다는 국민정부 공보

기려수필 속 '개별사건'의 주인공

기려수필은 송상도가 대한제국 말기부터 8·15해방까지 애국지사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이다. 서알보 장군은 이 책에서 개별사건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으로 짙막하게 언급되고 있다. 개별사건이란 무엇인가? 이 개별사건 때문에 서알보 장군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 '마적단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마적단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실상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만주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습격한 것이었다. 이 습격에는 서알보 장군뿐 아니라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유동열 지사가 동참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일을 의적단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유동열 지사는 안창호, 신채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던 인물이며, 서알보는 신민회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였다. 우선 자신부터가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평양 대성학교 출신이다. 그는 평양 대성학교에서 조선인 헌병 보조원을 구타한 사건의 주범으로 신민회 인사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는데, 함께했던 인물들이 안창호, 신채호, 유동열, 이동년, 조성환, 박영로, 김지간 선생 등 신민회 인사들이었다.

평위상을 만나다.

서알보가 비행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 하늘을 최초로 비행한 일본 해군 장교 나라하라의 비행을 목격하고서다. 그는 큰 충격을 받은 후,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행사의 꿈을 가진다. 하지만 중국 땅에서 식민지 출신 조선인이 비행사가 될 기회는 없었다. 남원항공학교 1기 모집에 지원하려 했지만 조선인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그는 피눈물을 흘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 위안스카이 아들의 도움으로 북경강무당(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소위로 임관 후 평위상 휘하에 배속된 것이다. 평위상은 중국 군벌 중 유일한 크리스천 장군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평위상은 서알보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다. 왜 그는 나라 잃은 식민지 조선인을 그렇게 신뢰한 걸까?

서왈보가 말한 충성의 이유는?

서왈보는 평위상 휘하에서 눈에 띄는 공적을 쌓는다. 1922년 제1차 직봉전쟁³⁾ 당시, 평위상 휘하의 중대장으로 참전해 베이징 총통관저를 중대병력으로 점령하는 전과를 거둔다. 그리고 평위상에게 건의해 항공대를 창설했으며 제2차 직봉전쟁 당시 봉천과를 공격하다가 격추당해 장쑤원에게 체포되었을 때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끝까지 평위상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어느 날 평위상은 서왈보에게 물었다. “서공, 왜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요?” “조국독립을 위해서입니다.” 평위상은 재차 물었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조선독립에 어떻게 도움이 된단 말이요?” “장군이 중화민국의 통치자가 된다면 조선독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서왈보 그는 의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태어난 조국을 위해 의리를 지키는 남자. 그 충정을 알기에 평위상은 서왈보를 형제 이상으로 아끼게 된다. 서국일(國一)이라는 이름에도 오직 한마음 한 뜻으로 조국 광복을 염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은 아닐까? **AF**

3) 베이징을 점령한 장쑤원의 봉천과를 평위상이 소속된 직계군벌이 몰아낸 전쟁



서왈보 장군이 졸업한 남원항공학교의 훈련 모습



남원항공학교에서 사용한 프랑스제 꼬두롱 훈련기. 서왈보 장군도 동일한 기체로 훈련을 했다.

서왈보 장군의 약력

- **본명 : 서왈보(중국명 : 徐國一)**
- **1887년 함남 원산 출생(국가보훈처 기준)**
- **1909~1918년**
 - 평양 대성학교 재학 중 중국망명
 - 북경 육영학교에서 중국어 공부
 - 중국 북경강무당(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풍옥상 군벌 예하 장교로 근무
 -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 가입 및 활동
- **1920년 3월 남원항공학교 3기 입학(서왈보 포함 52명)**
 - ※ 출처 中華民國空軍忠烈錄/中國的空軍
- **1923년 4월 남원항공학교 3기 졸업(서왈보 포함 40명)**
 - ※ 출처 中華民國空軍忠烈錄/中國的空軍
 - ※ 남원항공학교 졸업 후 풍옥상 군벌 휘하 항공대 창설
- **1924년**
 - 3월 소교(소령) 진급
 - 4월 중앙항공사령부 제1대 비행원
 - 9월 중앙임시항공대 비행원
- **1925년 8월 서북군항공처처원**
- **1926년 2월 서북군항공사령부 상교참모장(중교)**
- **1926년 5월 6일 장가구(내몽골)에서 이탈리아 SVA-9 시험비행 중 순국**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고흐는 “난 인정받지 못 할 거야...”, “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라는 부정적인 정신자세(Negative Mental Attitude)로 불행한 삶을 살았고 피카소는 “난 미술가로서 꼭 성공할 것이야...”, “난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만들 거야...”,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정신자세(Positive Mental Attitude)로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피카소가 말년까지 행복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카소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미국 심리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심리학은 지난 50년 동안 정신질환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매진해왔으며, 그 결과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심리학적 관점으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피카소처럼 시련을 극복의 계기로 삼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존의 ‘치료’적 관점으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전환시킨다면, 즉 ‘치료’를 ‘예방’으로 초점을 변화시킨다면 보다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입니다.」

긍정심리학은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eudemonia)’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의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것과 0의 상태를 +5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0 또는 +2의 상태를 +5의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통해 긍정심리학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위 사진(그림) 속 인물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인 것은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유년기 시절은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의 꿈을 지지해 주는 부모의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에 맞이한 시련 이후 두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는 그들이 평소 사용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충분한 삶의 조건으로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하였습니다.

‘즐거운 삶(pleasant life)’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만족, 기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 현재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유쾌함을,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운 삶은 긍정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즐거운 삶이란 남다른 쾌락을 쫓거나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2시간 또는 하루... 작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해 줄 사람과의 대화, 운동,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함으로써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삶(engaged life)’은 자신의 일, 대인 관계, 여가 활동 등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의 ‘몰입(Flow)’ 개념과 통하는 것인데, 몰입이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로써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나 취미활동을 할 때면 순식간에 3~4시간이 훌쩍 지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몰입의 순간입니다. 또한 몰입은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성격 강점 중 개인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을 대표 강점이라고 하였고, 이 대표 강점을 일, 사랑, 자녀양육, 여가 등 자신의 삶에 잘 활용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은 개인의 행위와 삶에 소중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을 넘어서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 국가 또는 신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www.authentichappiness.org에 가면 셀리그만이 제안한 24가지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검사(한국어)를 통하여 자신의 대표강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몰입을 가지게 하고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개인적인 행복 추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타심(利他心; Altruism)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타적인 활동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많은 증언뿐만 아니라 연구 보고 또한 매우 많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도덕적 완성이나 인격적 완성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인 ‘유데모니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휴가 중 하늘에서 심정지 환자 목숨을 구한 사례나,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공부방 수업을 도운 장병이야기 등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의 감사 못지않게, 도움을 준 자신이 오히려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게 됨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을 통하여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 성품과 성격 강점을 자각하고 계발하여 자신의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AF



우주의 이해

하늘로! 우주로! 우주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글

대위 조성민
(우주정책과)

우주의 이해



하늘로! 우주로!
우주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스페이스X사의 Falcon 9 Heavy호 발사, 미국의 우주군 창설 계획, NASA의 태양·화성탐사 등 우주를 향한 전 세계의 열망은 말 그대로 Hot하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는 2019년, 이제는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야 할 때! 우주를 이해하면 공군의 미래가 보인다!

UNDERSTANDING THE SPACE

우주(宇宙)는 시공(時空)간을 합친 말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행성으로 구성된 태양계에 속해 있으며, 태양계는 은하(銀河)로 불리는 별들의 집단인 은하계(銀河系)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은하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우주이다. 동양에서는 우주(宇宙)를 공간을 가리키는 우(宇)와, 시간을 가리키는 주(宙)를 합쳐 천지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였으며, 서양의 우주(cosmos)는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코스모스(kosmos)에서 유래하였는데,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khaos)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구를 둘러싼 우주는 태양의 영향권에 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지구 주위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구 반지름(6,378km)의 218배나 되는 크기의 태양은 27일을 주기로 자전하며 에너지와 입자들을 끊임없이 방출하여 지구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의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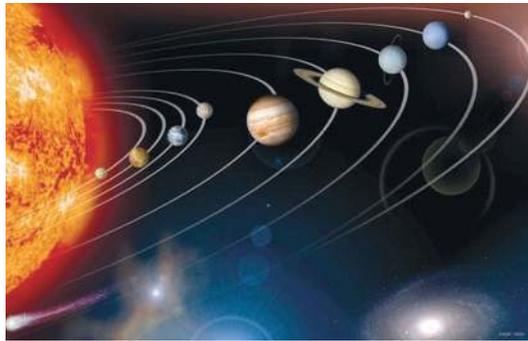


사진 출처 : 미국 항공우주국(NASA)

어려운 우주용어 풀이 *가나다순

- 광년 : 빛이 진공에서 1년 동안 진행한 거리. 빛이 1초에 약 30만km를 진행하므로 그 거리는 약 9조 4,600억km이다.
- 구심력 :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원의 중심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당기는 힘).
- 궤도 : 중력과 같은 원구심력에 의해 타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경로. 태양계 내 행성들이 움직이는 경로나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들의 운동경로가 이에 해당한다.
- 대기권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뉜다.
- 복사 : 물체로부터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현상
- 원심력 :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떨어내는 힘)
- 전도 : 에너지가 물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통해 옮아가는 현상
- 중력 : 지구의 만유인력과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합한 힘. 지표 근처의 물체를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
- 팽창 :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어디서부터 우주일까?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가스 상태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다. 지표면에서 120km까지는 비교적 무거운 산소, 질소 등이 있으며, 그 위는 비교적 가벼운 원소인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의 압력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데 고도가 약 5km 상승할 때마다 대기압은 1/2씩 감소하여 500km 이상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고도에서도 극소량의 대기는 존재하므로 지구 궤도상의 우주물체는 대기의 입자들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주는 몇 km에서부터 시작될까?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확정된 협약은 없으나 1979년 제13차 COPUOS 과학기술 소위원회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00km 이상을 우주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우주개발백서를 통해 100km 경계론을 명기하기도 하였다.



우주에서는 무중력?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고도 150~1,500km의 궤도로 비행 중인 물체가 받는 중력의 영향은 지표면에서와 비교하여 만분의 일에서 백만분의 일 수준이다. 궤도를 비행 중인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이 추락하거나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궤도를 유지하는 것은, 지구를 향한 중력과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정확하게 평형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우주공간은 무중력(Gravity-free)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중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중력은 존재한다. 우주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과 비교하여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 '미세중력(Microgravity)'이라 할 수 있다.

우주는 극저온의 진공공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입자조차 존재할 수가 없다. 지구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 지다가 결국엔 공기가 없는 거의 완벽한 진공의 상태가 된다. 우주 공간은 평균적으로 1cm당 수소입자 몇 개 정도만 존재하므로 공기 흐름을 통한 열의 전달이 불가능하고 복사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공간의 온도는 -270°C ~ -269°C 정도로 매우 낮으며 태양이 보이는 부분과 반대 부분과의 극심한 온도차이가 발생한다.



사진 출처 :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 이상이다.

우주의 나이는 현재의 우주 팽창속도를 계산하여 알게 되었으며,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대폭발(Big Bang)로 인해 생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930억 광년 이상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930억 광년의 의미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Observable Universe)의 신호가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그 이상의 범위는 인간이 알 수 없다. 하지만,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으므로, 그 크기는 930억 광년 이상이 될 것이다. AF





생활 타이포그래피

글자 다루기

생활 타이포그래피

문자가 발명된 이래로, ‘글자를 어떤 형태로 담아내느냐’에 대한 노력과 고민은 공동체의 지적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글자를 잘 쓰는 법’은 학문을 다루는 사람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였고, 활자가 발명된 후에는 이를 연구하고 다루는 전문가들이 양성되었습니다.

활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글자를 잘 쓰는 법’이 학교와 가정에서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취급되었으나 컴퓨터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글자를 잘 쓰는 법’은 예전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자를 잘 쓰는 법’은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보다 상위 개념인 ‘글자를 잘 다루는 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글자를 잘 쓰는 법’에 대한 중요성이 ‘글자를 잘 다루는 법’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글자에 대한 조형교육은 디자인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경우, 혹은 직무교육을 하게 되면서 받는 것으로 국한되어 교육 대상 범위가 좁습니다.

글자를 다루는 학문인 ‘타이포그래피’는 전문적이며 그 범주와 깊이는 넓고 깊으나, 실생활에서 글자를 다루는 수준의 기초적인 글자 조형 능력은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에서 다루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유용한 수준이며, 이를 ‘생활 타이포그래피’라 부르려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글자 다루는 능력’의 향상은 그 사회의 조형능력과 글자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기에 ‘생활 타이포그래피’는 중요합니다.

생활 타이포그래피는 현대인들이 글자가 들어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각종 글자들의 조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미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쉽게 할 수 없는 디자인’이 구분되는 시야가 사회에 배양되어, 전문적인 미적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글자 다루기의 중요성

글자가 들어간 디자인의 경우, 좋아 보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간의 차이는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가령 포스터를 만드는 경우, 뒤에 들어간 사진이나 그림은 상당히 별로더라도 잘 디자인된 글자 한 줄만으로 굉장히 멋진 포스터가 되고, 뒤에 들어간 사진이나 그림은 상당히 괜찮지만 그 위에 올라간 글자의 디자인이 엉망이어서 별로인 포스터가 되기도 합니다.



위의 예시는 같은 사진에 글자 디자인만 변형한 것이고, 아래의 예시는 같은 글자디자인에 서로 다른 사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같은 사진을 썼음에도 각 항목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서로 달라서 일관성이 약한 반면, 아래의 경우는 서로 관계없는 사진이어도 폰트가 같아 '일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그 어떤 요소보다도 '글자 디자인'이 디자인된 것의 표정과 일관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다루기'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문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보의 위계를 나눠서,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읽히게 함에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정보의 위계가 잘 나뉘진 것이 잘 읽히며, 그러한 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아래 제시된 두 명함 디자인은 같은 내용과 같은 글씨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의 명함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의 것이 더 잘 정돈되어 있다 느끼며 그로 인해 더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답다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자 다루기'는 이처럼, 1.배치해야 할 글자 정보들을 2.디자이너의 판단으로 3.정보의 목적에 맞게 4.잘 정돈하여 5.읽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 혹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서술된 내용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배치를 하거나 일부러 가독성을 떨어뜨려서 나름의 멋을 추구하는 경우 등을 가진 작업물도 존재합니다. 다만 앞으로 생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통상적이며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AF](#)

첫 독자의 편집후기

2019 '황금 돼지꿈' 꿀 준비되셨나요?
『트렌드 코리아 2019』

전 국민 독서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



글
독서신문 (1970년 창간,
독서문화 활성화 신문매체)

사진제공

미래의 창, 비즈니스북스, 한울

2019 '황금 돼지꿈' 꿀 준비되셨나요? 『트렌드 코리아 2019』

첫 독자의 편집후기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외 8명 지음
미래의창 펴냄 | 456쪽 | 17,000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란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자 동력이다. 기업은 소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잠이 든다는 점에서 '소비'는 우리 삶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곧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 트렌드 분석서 중 가장 유명한 책 『트렌드 코리아』의 열한 번째 시리즈인 『트렌드 코리아 2019』가 지난 10월 24일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나왔다 하면 연말연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트렌드 코리아 2019』 또한 출간된 뒤 대형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에서 내려온 적이 거의 없다.



이번 시리즈는 김난도 서울대 생활과학대 학 소비자학과 교수를 필두로 전미영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이향은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 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더 정확한 트렌드 분석을 위해 힘을 썼다.

2017년 말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10주년 특별판)의 경우, 무술년을 맞아 '황금 개의 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를 주제로 정하고 ▲소확행 ▲가심비 ▲워라밸 ▲언택트 기술 ▲케렌시아 ▲만물의 서비스화 ▲매력 자본이 되다 ▲미닝아웃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등을 트렌드로 예측했다. 이 단어들 중 몇이 올 한 해 끊임없이 언급됐으니, 이 시리즈의 예측력은 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작가진이 제시한 소비트렌드 전망 10가지의 앞글자를 따면 'PIGGY DREAM', 즉 '돼지



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콘셉트를 연출하라(Play the Concept) ▲세포마켓(Invite to the 'Cell Market') ▲요즘옛날, 뉴트로(Going to Newtro) ▲필환경시대(Green Survival) ▲감정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You Are My Proxy Emotion) ▲데이터 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Rebirth of Space) ▲밀레니얼 가족(Emerging 'Millennial Family')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As Being Myself) ▲매너소비자(Manners Maketh the Consumer)다.

하나씩 설명해보면, 먼저 '콘셉트를 연출하라'라는 장에서는 상품인 서비스든 가성비나 품질보다 '콘셉트'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콘셉트란 직관적이고 순간적으로 재미를 느끼게 하는 무언가다. 요즘 유행하는 3초짜리 광고나, 짧은 것이 생명인 스낵콘텐츠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자들은 "하나의 콘텐츠에 길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하는 요즘 '플로팅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콘셉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요즘옛날, 뉴트로'란 옛날 물건과 문화를 겪어보지도 않은 세대들이 과거의 물건과 문화에 대해 '새롭다'라고 느끼는 행태다. '레트로'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면, '뉴트로'는 과거를 모르는 10대와 20대들에게 옛것에서 찾은 신선함으로 승부한다.

'세포마켓'은 요즘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팔거나 유튜브 등에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세태를 의미한다. 역대 연봉의 유튜버나 아프리카TV 방송인들이 자신의 채널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이용해 물건을 팔고 대형 유통기업이나 방송사와 협업하는 것은 이제 익숙하다. 작가들은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카멜레존'은 협업·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낮에는 덮밥집,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뀌는 점포와 전시회장, 강연장, 책방이 있는 카페 등이다.

도덕성이 특징인 소비트렌드도 있다. '필환경'은 소비자들이 점점 환경보호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매너소비자'는 판매자의 갑질을 지탄하는 데서 나아가 소비자에게도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사회를 묘사한다.

이 외에도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에서 데이터 지능(DI)으로 진화한다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좋은 감정만 소비하려는 행태인 '감정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탈며느라·탈사부모를 선언하는 등 각자 자신의 행복에 열중하는 가족인 '밀레니얼 가족', 점점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태인 '나나랜드'가 트렌드로 소개됐다.

이 책은 단순히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하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을 왜 사는 지까지 분석한다. 저자들은 소비란 곧 삶의 일부이며, 사람이며, 사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분석하는 일은 곧 사람과 사회를 분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책의 첫 장을 넘겨보자. **AF**

01.



『세계미래보고서 2019』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비즈니스북스 펴냄
376쪽 | 16,500원

02.



『중장년 싱글세대의 소비 트렌드』

미우라 아츠시 지음
(주)에드리치 마케팅전략연구소 옮김
한울 펴냄 | 169쪽 | 16,500원

01. 2008년부터 시작된 미래예측보고서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의 최신판인 『세계미래보고서 2019』,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상하는 미래 기술과 그 발전상을 예측하면서도 단순히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무슨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02. 1인 가구의 증가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는 일이다. 다만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요인들, 즉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 만혼 등의 범위와 깊이를 살펴보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특징과 소비 주체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비록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일본 싱글세대의 소비 특징이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책이 조망하고 있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이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클라우제비츠,
“군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전문가다.”



글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클라우제비츠, “군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전문가다.”

“물질적 힘은 칼의 손잡이, 정신은 칼날”

위기가 닥치면 토끼나 사슴은 부들부들 떠난다. 하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다르다. 그네들은 위협이 닥칠 때 오히려 차분해지며 동작도 신중해진다. 왜 그럴까? 사자나 호랑이는 프레데터(predator), 즉 최상위 포식자다. 자연에서 이들을 잡아먹는 짐승은 없다. 때문에 겁먹을 까닭도 없다.

전략의 고전인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Karl Clausewitz, 1780~1831)는 프레데터 같은 군인이었다. 열두 살에 군문에 들어선 그는 나이 열셋에 첫 전투를 겪은 이후 30년 넘게 전장을 누볐다.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클라

우제비츠가 유능한 군인임을 말해준다.

클라우제비츠는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을 “폭력과 우연, 그리고 이성적 판단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삼위일체”라 강조한다. 죽고 죽이는 절체절명의 상황, 아무리 치밀하게 짠 작전도 어긋나기 십상이다. 이럴 때 승패는 용기와 이성적 판단에 따라 갈리곤 한다.

“지휘관은 사실, 지식, 판단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중략) 대부분의 정보는 틀렸기 마련이다. 공포심은 잘못된 정보를 크게 부풀려 놓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믿으며 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풀려 나간다고 생각되면 동요한다. 하지만 굳건한 신념을 가진 자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하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이다. 나아가 그는 “물질적 힘이 칼의 손잡이라면 정신은 칼날”이라고 강조한다. 덩치 크고 힘센 쪽이 결투에서 꼭 이기리란 법은 없다. 담력 있게 나선 약자가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뼈적대는 기계와 같다. 설계가 완벽했어도 부품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찰(friction)’들로 기계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은 흔하다. 기계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곳곳을 조이고 기름을 칠해야 한다. 수많은 훈련은 군대라는 기계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칠이다. 충분히 다듬어진 군대는 실전에서도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휘관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든 병사들의 열정과 희망에 불붙일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투를 카드게임에 빗댄다. 가능성과 확률, 행운과 불행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포커페이스의 강심장이

◀ 『전쟁론』을 집필한 클라우제비츠의 초상화



『전쟁론』 독일어 원본 표지 ▶

지배하는 카드관과 전쟁터는 다르지 않다. 클라우제비츠가 “우리의 형제와 자식을 안심하고 맡길 장군은 맹렬한 불같은 가슴보다 냉정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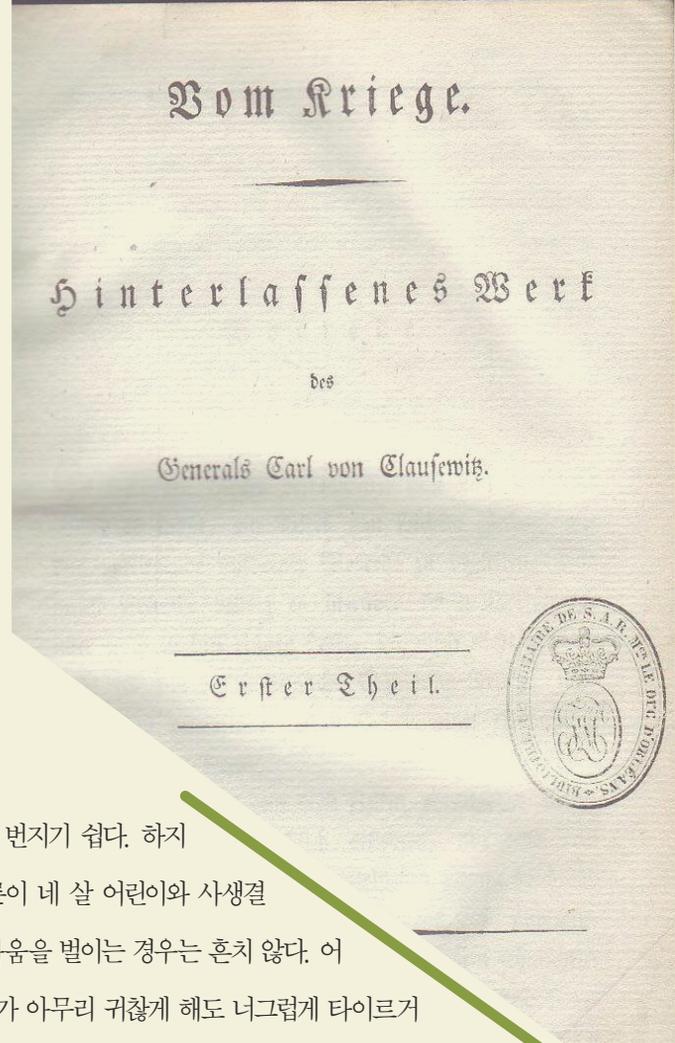
클라우제비츠는 프로이센 사관학교 교장을 10년 이상 지낸 고급장교이기도 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는 전쟁을 큰 틀에서 바라보는 혜안이 있었다. 전쟁은 무뢰배들의 막 싸움이 아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투를 ‘정당하게’ 벌이는 집단은 2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꾸리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은 국가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는 국가에게 있어 전쟁이란 “내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 행위”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강조한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를 과멸시키는 데 있지 않다. 전쟁은 무역이나 경제 원조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군인은 냉철하게 전쟁의 목적을 가늠하며 자신의 처신이 정당한 전투 행위인지 무자비한 폭력 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전문가다.”

모든 싸움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서로 치받다 보면 다툼의 목적이나 까닭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복수심에 불타거나 겁에 질린 나머지, 상대를 한 대라도 더 때려 과멸시켜야 한다는 욕망에 휩싸여 버린다. 이럴 때 싸움은 잔혹함의 끝판 왕이 되어버린다.

체격이 고만고만한 젊은이들끼리의 주먹다짐은 죽기살기 식



결투로 번지기 쉽다. 하지

만 어른이 네 살 어린이와 사생결

단식 싸움을 벌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

린아이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너그럽게 타이르거

나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다. 훌륭한 군인도 다르지 않다. 진정 강한 군인은 프레데터, 최상위 포식자와도 같다.

쉽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함부로 주먹을 쓰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제시된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무력을 쓸 뿐이다.

“군인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두렵지만 이를 극복하며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일 뿐이다.”

데이브 그로스먼과 로런 W. 크리스텐슨이 쓴 『전투의 심리학』에 나오는 구절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투에 잔뼈가 굵은 실전형 군인이었다. 동시에 그는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헤아릴 줄 아는 직업 군인이기도 했다. 그의 용기와 냉철한 판단력은 숱한 전투 경험 속에서 어떤 상대도 압도할 만큼의 강인함을 키운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당신은 공포와 보복심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인가?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AF



Hollywood English

언브로큰



1998년은 일본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해입니다. 필자는 그 해 겨울 세계적인 명승부전도 보고 스키도 타고 설국(雪國)의 명소들도 여행하기 위해 스키 동호회 친구들과 나가노에 있었습니다.

20년 후, 필자는 놀랍도록 특별한 사연이 있는 미국인이 나가노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나가노 인근의 전쟁포로 수용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인은 전쟁 드라마 ‘언브로큰(Unbroken)’의 주인공 루이스 잠페리니(1917-2014)입니다.

‘루이’라는 애칭을 가진 루이스 잠페리니는 이탈리아인의 피를 가진 미국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와 동네에서 따돌림 받던 소년 루이는 이렇게 말하며 풀이 죽곤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I am nothing.)”

루이의 형은 동생이 육상에 소질이 있는데도 실의에 빠지자 이렇게 충고합니다.

“견딜 수 있으면 넌 뭐든 해낼 수 있어.
(If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때는 1936년. 무대는 베를린 하계올림픽 경기장. 19세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루이는 5,000m 육상 종목에서 8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그는 1940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에 나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꿈을 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그의 꿈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루이는 위관장교로 임관해 1941년 미합중국 육군 항공단(USAAC: United States Army Air Corps)에 들어간 이후 폭격기 ‘B-24 리버라이어터





(Liberator)의 폭격수(爆撃手, bombardier)로 활약합니다. 안타깝게도 1943년 그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실종된 군인과 기체를 수색하라는 임무를 받고 출동한 그는 기체와 함께 바다에 추락합니다. 47일간 표류한 루이는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문제는 그를 발견한 게 일본 해군이라는 사실. 루이의 반인륜적 포로 생활은 마셜 제도 인근 섬에 있는 일본 해군 기지에서 시작됩니다. 미군의 군사기밀을 발설하지 않아 42일간 혹독하게 고문 및 폭행을 당한 루이는 오푸나 전쟁포로 수용소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고문 및 폭행은 계속됩니다. 그 무렵 미국 국방부는 그가 전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루이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한편, 루이는 도쿄에 있는 오모리 전쟁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 수용소장 와타나베 무쓰히로 중사는 루이에게 가학적 폭력을 일삼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와타나베가 루이에게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You are nothing.)” 하고 무시할 때마다 루이는 어릴 때 형이 해준 충고를 떠올려 견디고 또 견딥니다. 중령 계급의 한 포로는 이런 말로 그의 생명력을 단련시켜 줍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야.

그게 우리의 승리 및 복수 방식이야.

(We beat them by making it to the end of the war alive. That's how we do it. That's our revenge.)”

루이가 마지막으로 갇힌 곳은 나가노에서 가까운 나오에츠 전쟁포로 수용소입니다. 천인공노할 폭력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반하는 등 강제 노역도 이겨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지휘권을 준 와타나베의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포로가 된 지 2년 4개월 만에 루이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현상수배 전범 40인 명단(The List of the Most Wanted War Criminals in Japan)’을 공개합니다. 23번째에 이름을 올린 와타나베는 어떤 법적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자유인으로 살다가 2003년에 사망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면 평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A moment of pain is worth a lifetime of glory.)”

루이가 남긴 명언입니다. 하지만 전쟁 영웅이 돼 귀국한 루이는 멈추지 않는 악몽으로 인해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 돼 비로소 심신의 건강을 되찾습니다.

1998년에 나가노를 찾은 미국인 루이스 잠페리니. 그가 나가노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에츠 전쟁포로 수용소와 가까운 그곳에서 그는 와타나베를 수소문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계획은 와타나베가 거부함으로써 무산됩니다. 당시 81세였던 루이는 나가노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습니다. 평화의 위대한 가치를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불굴의 생명력과 정신의 기록’인 ‘언브로큰’은 로라 힐렌브란드가 쓴 루이 잠페리니의 동명(同名) 전기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산 28,211명 중 85%가 별 다섯 개 만점을, 11%가 별 네 개 만점을 준 명저(名著)입니다. 감독은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AF**



트렌드가 보인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그리고 퀸에 대한 진실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영향으로 그룹 퀸의 히트곡들은 거리와 라디오에 연신 울려 퍼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퀸 신드롬'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 MBC는 1985년 7월에 영국에서 열렸던 (영화 속에서 재연됐던)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를 방영해 분당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보헤미안 랍소디>엔 허구도 일부 섞여 있으며, 영화 속에 거론되지 않은 퀸의 많은 뒷이야기들도 많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설의 록 밴드, '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퀸의 밴드 로고는 프레디 머큐리가 직접 디자인했다. 메인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는 런던의 일링예술대학에서 예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 미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퀸 크레스트'로 알려진 밴드 로고도 그의 작품. 마치 귀족 가문의 문양 같은데, 이 동물들은 모두 멤버들의 '별자리'를 상징해요. 드럼의 로저 테일러, 베이스의 존 디콘이 '사자자리', 기타의 브라이언 메이는 '게자리', 프레디 머큐리는 '처녀자리'기 때문이죠.

멤버들은 음악활동 외에 공부도 똑소리나게 잘했다.

천재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밴드 생활 이후 런던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자신의 전공이었던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며 '행성 간 먼지의 속도에 따른 빛의 반사'를 연구했고, 2008년엔 리버풀 윤 무어레스 대학 총장이 됐답니다.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치의학학을 전공했다가, 밴드 생활을 하면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꿔 졸업했죠. 존 디콘은 전자 공학을 전공했는데, 앰프와 같은 퀸의 장비들을 직접 만들 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2집을 발표할 때까지 과외 교사로 일하기도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사실 노래 ‘보헤미안 랍소디’ 연주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퀸의 곡 중 단연 베스트로 꼽히는 ‘보헤미안 랍소디’. 하지만 이 곡을 작곡한 프레디는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늘 과소 평가했기 때문에, 이 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무대를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노래를 사랑했죠.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의 메인 기타는 항상 단 ‘한 대’였다.

브라이언 메이가 공연 때마다 들고 다니던 빨간색 기타 ‘레드 스페셜’은 그의 나이 열일곱 살 때, 항공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만든 것. 오크나무로 바디를, 100년된 벽난로 속 마호가니로 넥을, 자전거 스프링과 칼날로 트레몰로 암을 제작해 약 1년 반 만에 완성한 수제 기타였습니다. 그는 기타 피크 대신, 6펜스 동전

으로 연주했는데, 어디에서도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기타 소리를 만들어냈죠. 현재 브라이언 메이의 회사에서 레플리카 모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퀸의 공식 팬클럽은 기네스에 등재됐다.

1973년 결성된 퀸의 공식 팬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록밴드 팬클럽’으로 기네스 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죠. 밴드의 모든 멤버가 각자 작곡한 노래가 한 곡 이상 모두 1위에 올랐다는 기록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소문난 고양이 애호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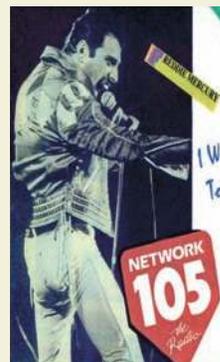
영화에도 등장하는 프레디 머큐리의 고양이들. 20대 초반부터 톰과 제리를 키웠고, 이후 프레디의 연인인 토니 바스틴이 선물한 오스카, 일본 여행 후 데려온 미코, 하얀 고양이를 좋아해 데려온 릴리, 골리앗, 짐 허튼이 ‘냥줍’한 길냥이 로미오, 골리앗과 달라일라를 입양했죠. 그는 미국 공연 중

도 자신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고양이 장례식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끊기도 했습니다. 프레디가 세상을 떠날 때도 고양이 달라일라를 쓰다듬으며 떠났죠. 여행 중에도 전화해서 몇 시간이고 고양이들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퀸은 ‘라이브 에이드’ 공연 전에 재결합한 게 아니다.

영화 속에선 솔로로 활동한 프레디 머큐리와 나머지 멤버들이 연락을 끊다가,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위해 재결합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해에 <The Works> 앨범으로 (유명한 ‘라디오 가가’ 노래가 실린) 다시 만났고, 세계 투어 공연까지 성황리에 이끌고 있었답니다.

CF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I WAS BORN TO LOVE YOU’는 원래 퀸의 노래가 아니다.



퀸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I WAS BORN TO LOVE YOU’는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활동을 할 때 1985년에 발표한 싱글 곡입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머지 멤버들이 이 노래를 락 버전으로 리메이크해서 재발매하여 유명해진 것이죠! **AF**

생각하는 그림 

불편해도 괜찮아

스위스 취리히에는 도로 곳곳에 '20존(Zone)'이 있습니다. 20존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20km인 지역으로, 차량이 다닐 수는 있지만 보행자가 언제나 통행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차로를 불쑥 가로질러도 경적을 울리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덕분에 40만 명이 사는 취리히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생각의 전환 덕분입니다. 바로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된 교통수단이 되면서 우리는 분명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쉽게 여행과 출장을 다닐 수 있고 일상에서 걷는 수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위한 길이 늘어나면서 두 발로 걷는 '사람' 자체가 차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것이 우선으로 여겨지는 교통체계에서 보행자는 교통약자가 되었습니다.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기술발달이라는 빛은 항상 그림자와 함께 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인공지능까지 빠름과 효율을 선사한 기술은 정작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지만, SNS에 갇힌 음식사진을 공유하기 바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빠름과 효율은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지만 어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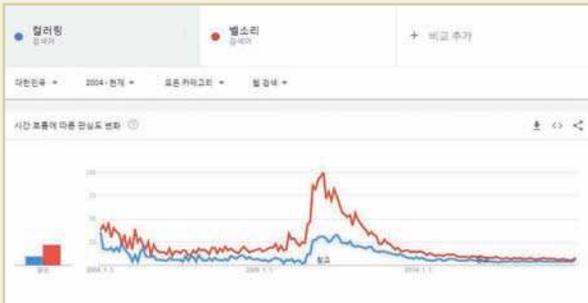
다시 취리히로 돌아가 봅시다. 걷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취리히에서 교통안전의 가장 큰 목표는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기'입니다. 과속처분을 엄격히 해 운전자를 귀찮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신호 간격을 좁혀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함을 만들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죠.

편리함과 효율을 좇는 게 익숙한 세상에서 불편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깐의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건 어떨까요? 편리함도, 효율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AF**



기준의 기준 📌 사라진 컬러링을 찾아서

컬러링(통화연결음)이 사라졌다. 가지각색의 노래로 통화연결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던 컬러링, 어느새 주변에서 컬러링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다 똑같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통화연결음을 듣고 있자니 한편으론 사라져가는 컬러링이 그리기도 하다. 컬러링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 작은 부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단편을 보여주곤 한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 언제 컬러링이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출처: 구글트렌드

특정 단어의 검색량을 분석해주는 구글트렌드(Google Trend)에 '컬러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다. 검색량에 비례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 검색 키워드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구글 트렌드는 컬러링에 대한 200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검색량을 모두 분석해주었다. 검색 결과, 컬러링의 검색량은 2018년 현재 5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컬러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벨소리'였다.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컬러링과 벨소리 모두 검색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이 상당히 유사했다. 컬러링과 벨소리는 모두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아직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에게 음악은 중요한 자기표현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컬러링과 벨소리, 이 두 가지는 다양한 이유로 결국 사라졌다. 우선 사람들이 아예 전화를 잘 안 한다. 배달 음식을 시키기 위해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짜장면을 시켜도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

고 심지어 결제도 어플로 한다. 또 이제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새로운 노래를 검색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는 내가 자주 듣는 음악을 분석하여 내 음악 취향을 알려주며 새로운 노래를 추천해 주기까지 한다. 그래도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변했다는 점일 것이다. 요즘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노트북에 붙이는 스티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새기는 글자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모든 것이 자기표현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내가 SNS에 올리는 짧은 글 한 편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변해주고 내 가방에 달려있는 공군 캐릭터 인형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다. 내가 월간 『공군』에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자기표현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은 똑똑해보이고 싶었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모두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표현이 넘쳐나는 시기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표현 욕구를 숨겨왔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에게 딱 맞는 수단이 없었을 뿐이다. 모두 비슷하게 생긴 메신저 아바타로, 남이 부른 노래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각자가 자신의 표정을 프로필 사진으로, 감정을 자기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방법이 무수히 많아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컬러링의 향수에 젖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또는 '#공군인'이라는 해시태그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다. 나는 앞으로 월간 『공군』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부족한 실력으로 '트렌디함'을 좇으며 그것을 분석하여 많은 공군인과 소통하고 싶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AF



2019
01
4 8 7

POST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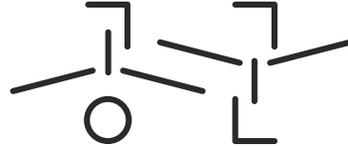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백일장 일흔네 번째 주제

군복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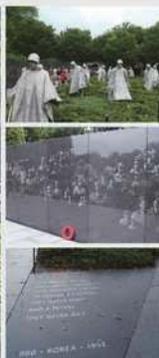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보내주세요

• 2019.3.31까지 • 향군, 정회원, 현역장병, 기업, 단체, 전국민 대상

성금
2억원 돌파
2018.11.28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70여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6천명, 카투사 8천명의 이름을 새겨넣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뜻깊은 사업인 건립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모금 계좌 안내

우 리 1006-701-488707
국 민 801737-04-010172
농 협 317-0015-2392-71

•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 의 : 02) 417-5886
모금된 금액은 전액
추모의 벽 재단에 전달됩니다.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comments or stories.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1
4 8 7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마감일 : 1월 31일까지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은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사연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추첨을 통해 <월간 『공군』 기념 자석>도 보내드립니다!
(색상 무작위 배송)

1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화물차 운전병 2. ② 전직지원정책과

당첨자 강원도 원주시 조주호 / 경남 진주시 이현용 / 대구시 수성구 신동훈 / 경기도 평택시 김기학

